

교육정책 오락가락 학생·학부모 혼란

대통령 정시확대 언급...2022년 대입 고1학생에 불통
“고액 과외 등 고소득층 유리” vs “신뢰 추락...정시가 공평”
지역 교육제도 찬반 엇갈려...확대 범위 등 세부 정책 시급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 발언이 지역 교육계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정시 확대에 선을 그어왔던 교육부도 입장을 번복하는 등 뜻밖의 교육정책에 애초에 학생과 학부모들만 혼란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현재 고1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당초 설정했던 정시 비중 목표치 30%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고1 학생과 해당 학부모들은 대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정시 확대가 대입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주장 등을 내세우며 환영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지역 교육제도 정시 확대 찬반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하루빨리 정시 확대 범위 등 세부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광주·전남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의 정시 확대를 두고 지역 고1 학생과 학

부모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이날 일부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진학 문의를 받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고1 아들들 둔 이모(여·51·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변의 말에 지난 1년간 없는 시간도 쪼개 ‘학종 맞춤형’ 입시를 대비해왔다”면서 “그동안 아이와 함께 노력해온 게 물거품이 될까 우려스럽고, 앞으로 언젠가 정책이 뒤바뀌지 몰라 속이 탄다”고 하소연했다. 전남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도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시에 약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경우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수도권 등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한 공립 고교 교사는 “정시 확대도 당장 농어촌 학생의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학생과 학

부모는 물론, 교사들까지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시 확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쪽에선 고액 과외 등이 가능한 이른바 서울 강남권 중심의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주장 등을 펼치고 있는 반면, 정시 확대 찬성쪽은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신뢰가 추락한 내신보다 정시가 공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시 비중을 늘리려는 입시제도 개편 방향에 교육계의 많은 주체가 혼란스러워하고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시 비중 확대가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정시 확대와 관련해 “주입식 경쟁 교육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을 황폐화할 수 있다”며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보완이 필요하고, 이는 교육 당국의 책무”라는 성명을 냈다. 장석용 전남도교육감도 “혼란을 가져올

정시 확대보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돕는 방향의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90% 이상이 수시로 진학하는 전남 학생들에게 절대 불리하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달리 지난해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행정실장과 학교 위원위원장을 맡은 고3 학부모가 시험지를 통째로 유출하는가 하면, 올해 7월 고려고의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행태가 드러나면서 정시 확대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명문대 진학을 높이기 위해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을 특별관리하는 등 잇단 일탈에 광주 교육의 신뢰가 밑바닥까지 추락, ‘내신 불신’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부터 온갖 범죄와 차별 행위를 유발하는 내신을 없애고, 수능시험 점수로 대학에 가는 정시가 차라리 공정·객관적이라는 의견이다. 광주의 한 교육계 인사는 “시험문제 유출과 점수조작 등으로 인해 학교와 교사마저 믿지 못하게 된 학생들이 오히려 정시 확대를 바라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포스코 광양제철·고려시멘트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 ‘나몰라라’

올 배출량 오히려 증가
15.3t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업,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4개 업종 33개 사업장 중 일부 업체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배출한 초미세먼지는 2474t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38t과 비교해 36t 증가한 것이다. 장성에 소재한 고려시멘트도 올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74t으로 작년 58.7t보다

“시각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거부는 차별”

인권위, 해당 음식점에 과태료 부과 권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막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시각장애인 2명 등 4명은 지난 3월 한 식당을 방문해 보조견 2마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지 물었다. 식당 주인 B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음식점 내부로 개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며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식사를 하라”고 말했다. A씨는 보조견 동반 입장을 거부한 것이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 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당 등을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

살인진드기 초기 진단 가능 고감도 분석법 개발

GIST, 김민곤 교수 연구팀
GIST(지스트) 화학과 김민곤 교수 공동 연구팀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살인진드기)를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살인진드기로 알려진 잠진드기에 물려 전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09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치사율이 최대 30%나 되지만 아직 상용화된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는 상태이다. 김민곤 교수팀의 연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초기 진단을 가능케 해 전염 가능성을 낮추고, 빠른 치료를 통해 치사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교수팀은 살인진드기 RNA를 보호하는 핵단백질에 상호결합하는 압타머를 최초로 발견, 이를 이용한 극미량의 검출 분석법을 개발해냄에 따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초기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는 2009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 되었으며, 현재 상용화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 구강보건센터 개소
24일 광주 북구보건소 3층에서 ‘구강보건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문인 북구청장과 북구 의원 등 관계자들이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3년간 뺑소니 사망자 44명

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2264건의 뺑소니 사고로 4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광주 12명, 전남 3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뺑소니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3.12명으로, 충남(3.33명), 충북(3.13명)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았다. 반면 광주는 0.97명

으로, 부산(0.72명), 인천(0.84명)을 제외하곤 가장 낮았다. 전국적으로 뺑소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밤 10-12시 사이였다. 소 의원은 “뺑소니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 등 범죄자를 놓치지 않도록 시설·장비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예쁘게 생겨서”...인형 등 200여차례 훔친 40대 여성 경찰서행

○...“예쁘게 생겨 갖고 싶었다”는 등의 이유로 200여 차례에 걸쳐 인형을 비롯한 각종 물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서행.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붙잡힌 A(여·41)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에 광주시 서구의 한 서점에서 불펜을 훔치던 중 매점 상습 절도 신고를 받고 서점 내 CC-TV를 확인하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A씨는 올 들어 10개월 동안 광주 시내 서점·문구점 등에서 인형에서부터 문구용품, 운동용품 등을 가리지 않고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A씨가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친 뒤 자신의 집에 진열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집착한 듯 하다”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